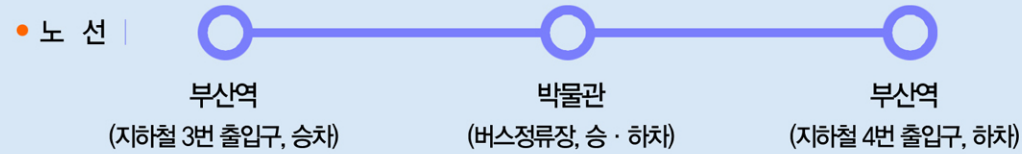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 무료셔틀버스 운행안내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시간표를 확인하시어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회 차 | 평 일 | | 토요일 | | 일요일 · 공휴일 | |
|-----|--------|--------|--------|--------|-----------|--------|
| | 박물관 출발 | 부산역 출발 | 박물관 출발 | 부산역 출발 | 박물관 출발 | 부산역 출발 |
| 1 | 10:00 | 10:30 | 10:00 | 10:30 | 10:00 | 10:30 |
| 2 | 11:30 | 12:00 | 11:30 | 12:00 | 11:30 | 12:00 |
| 3 | 13:00 | 13:30 | 13:00 | 13:30 | 13:00 | 13:30 |
| 4 | 14:30 | 15:00 | 14:30 | 15:00 | 14:30 | 15:00 |
| 5 | 16:00 | 16:30 | 16:00 | 16:30 | 16:00 | 16:30 |
| 6 | 18:20 | - | 18:20 | 19:00 | 18:20 | - |
| 7 | - | - | - | - | 19:20 | - |
| 8 | - | - | 21:20 | - | - | - |



배를 매며

장석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장석남 (시인, 대학교수)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맨발로 걷기」로 등단.
2012년 제23회 김달진 문학상
2010년 제10회 미당문학상
1999년 제44회 현대문학상 시부문상
시집으로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뺨에 서쪽을 빛내다」 등이 있다.

바다 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1 소장품 이야기 04

위도 떠배

PART 2 박물관 사람들 07

PART 3 박물관 교육행사 08

PART 4 박물관 소식 09

PART 5 사진 후기 10

소장품 이야기

위도 띠배



‘위도 띠배놀이’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의 마을굿이다. 1985년 2월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위도 띠배놀이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어민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동제의로, 제의 마지막에 띠배를 띄어 보내는데서 ‘띠배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원당제(元堂祭)라고도 하는데 제당의 명칭인 원당에서 나온 말이다.

원당굿은 배마다 지니고 있는 오색의 뱃기에 일 년 동안 모시게 될 뱃신을 내림받고 풍어를 기원하는 선주 중심, 남성 중심의 제의로, 원당에서는 열두 서낭을 모시고 있으며, 선주들은 이 열두 서낭 중 한 분을 내림받아 뱃기에 모시고 내려가 일년 간 자기 배의 뱃신으로 섬긴다. 굿당의 제물은 메 · 떡 · 고기 · 생선찜 · 나물 · 과일 등을 제대로 갖추어 차리고 각 당신도(堂神圖) 위에는 돼지 날고기를 걸어놓는다.

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순서 | 굿이름 | 굿 내용 |
|----|-----------------|--|
| 1 | 성주굿 | 성주님이 와서 터를 잡고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 심고 나무를 길러서 집을 짓는 내용으로, 마을사람들의 명(命)과 복(福), 특히 풍어를 빌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굿 |
| 2 | 삼신굿 | 삼신님을 위하여서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굿 |
| 3 | 손님굿 | 강남국의 손님(마마神)을 맞아 손님을 위하여주고 명과 복을 기원하는 굿 |
| 4 | 지신굿 | 일종의 지신풀이로 터주를 위하고 부(富)를 기원하는 굿 |
| 5 | 성낭굿(원당 · 본당서낭굿) | 원당 · 본당서낭을 위하여 각 지역의 서낭을 불러 모시고 위하며, 마을과 면장 · 이장 등 마을 인사들을 축복하여 주는 굿 |
| 6 | 성낭굿(애기씨 서낭굿) | 어린이들의 수명장수와 부를 축원하는 굿 |
| 7 | 성낭굿(장굿 서낭굿) | 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달라고 축원하는 굿 |
| 8 | 깃굿 | 각 어선의 선주들이 일 년 동안 자기의 배에 모실 서낭을 내림받는 굿. 무녀가 서낭의 이름을 대고 생쌀을 집어 그 수가 짝수가 되면 서낭이 내리고, 그 서낭의 이름을 한지(韓紙)쪽에 적어주는 것을 깃손받기라고 함. 이 깃굿은 어선 하나하나의 뱃기에 깃손을 내려주면서 선주에 대한 축원과 풍어를 기원하기 때문에 일명 선주굿이라고도 부름 |
| 9 | 문지기굿 | 당굿의 마지막 절차로 여러 원혼(怨魂)을 달래고 보내는 굿 |





위도 띠배 허수아비

소장품 이야기 위도 띠배



상설전시_ 해양문화2

원당의 당굿이 모두 끝나면 다시 마을로 내려와 마을의 동쪽 바닷가에 있는 용왕바위에 가서 한지에 싸서 만든 용왕밥을 바다에 던지고, 농악대와 뱃기를 든 선주들이 행렬을 이루어 마을 뒤쪽을 한 바퀴 돌아오는 주산돌기를 한다.

원당제 일행이 용왕밥 던지기와 주산돌기를 한 후 마을로 돌아오면 바닷물은 대개 만조가 된다. 원당굿과 주산돌기를 하는 동안 마을 앞 바닷가에서는 띠배를 만들어놓고 있다가 용왕굿을 시작한다. 띠배는 띠풀과 짚, 싸리나무 등을 함께 엮어 길이 3m, 너비 2m 정도의 모형을 만들고 띠배 안에는 떡·밥·고기·나물·과일 등을 넣어놓고 허수아비도 만들어 세운다. 그리고 작은 판자 쪽에, “소속 : 대리 띠배, 유자망, 낭자망, 대풍어 용왕님 귀하” 라고 써 붙여놓고 돛대도 만들어 세운다. 띠배에 모든 준비를 마치면 바닷가에 용왕상을 차리고 용왕굿을 시작하는데, 이 용왕굿에서는 부녀자들이 주동이 된다.

여자들이 고깔 쓰고 장구·징·소고 등을 치며 농악대를 이루어 흥겹게 노는가 하면, 탈을 쓴 여인이 나와서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한다. 용왕굿을 마치고 바다에 고수레까지 끝나면 띠배는 바다에 띄워지고 모선(母船)에 끌려 바다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

옆에서는 호위선 서너 척이 오색 뱃기를 휘날리며 바다 위를 질주하고, 모선에서는 농악소리와 소리 잘하는 주민들의 <가래질소리>·<술비노래> 등의 띠뱃놀이의 절정을 이룬다.

드디어 띠배를 바다 가운데에 떼어놓으면 마을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서서 합장을 하거나 절을 하며 띠배가 마을의 모든 액을 싣고 멀리 떠나기를 기원한다. 이 때쯤이면 바다는 어둠에 묻히고 띠배도 멀리 사라져가면서 띠뱃놀이가 끝난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박물관 사람들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어린 눈들이 박물관의 유물 둘러봅니다. 부모님에게도 낯선 수식, 수백 년 전의 유물이건만 "이건 뭐야? 어디에 쓰는 거야?" 라며 끝없는 호기심을 쏟아냅니다. 자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분주히 패널을 읽고, QR 코드를 찍어보던 부모님들이 끝없는 질문 공세에 지치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저희와 눈이 마주치면 구세주를 만난 듯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네, 그게 바로 저의 일입니다.

저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시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박물관의 유물들을 함께 둘러보며 자세한 설명도 하고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기에 유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뿐 아니라 대상에 맞는 언어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람객을 만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전시해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바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관람객은 점잖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제 해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정반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설 중이라도 언제든지 물어봐야 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나오면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 제가 조금이라도 지겹게 해설을 진행하면 금방 집중력이 흐트러져 저에게 늘 적당한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해설이 끝나면 성인인 제가 당연시 여겨왔던 부분도 반성하고 어린 친구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초등학교생에게 적합한 언어표현을 알게 되는 등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배워나가면 앞으로 박물관을 찾은 많은 관람객에게 더 좋은 해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전시관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전시운영팀 특성상 저는 많은 관람객을 마주하게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시간이 넘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볼 것 없는 10분짜리 공간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저에게도 박물관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물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이 됩니다.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에 오셔서 과거의 바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현재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미래의 바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경 (전시운영팀)

박물관 교육행사

어린이박물관 구연동화 「물고기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매주 목~토 / 1일 2회 / 유아 / 80명
어린이박물관 / 인터넷 및 현장 접수 / 무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동화를 통해 쉽게 알아보고, 바다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고통 받는 물고기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구연동화와 동요를 통해 배워보는 유아대상 교육 프로그램



Happy Weekend 「충무공 전술비연의 암호를 풀어라」

1~3월 / 매주 토요일
2회 진행 (12:30~14:00, 15:00~16:30)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재료비 별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비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연을 만들어 보는 가족체험프로그램



화상통화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만남」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11:30 / 전체 / 20명 / 4층 전시실(극지연구)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남극의 자연 환경과 과학연구 활동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과학자로서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소식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

숨어있는 옥의 티를 찾아라!

개편 홈페이지에서 오·탈자, 개선사항 등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2월 7일(금)~2014년 2월 28일(금)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기념 '옥의 티' 찾기 이벤트 2014. 2.7~2.28

더욱 새롭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고 개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옥의 티' 찾기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오·탈자, 오류사항, 개선사항 등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USB,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을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립해양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영화 무료상영 '해양가족극장' 2014. 3

매주 토요일 3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무료상영 합니다. 상영일정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 토토의 움직이는 숲 / 몬스터 호텔 / 테드 : 황금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재청은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시행 : 2014.01.29(수)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2014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 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국립해양박물관에 오시면 유리기획전(유료 기획전 진행시)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설인철 선임관장 부임 2014. 2.10

설인철(薛寅哲)

학 력
1989. 2.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1. 2.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84. 02 :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행정주사보 공채임용
84. 02 ~ 05. 05 : 국립수산진흥원 사무과,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해양환경과, 수질개선기획단, 해양정책과, 수산정책과
05. 05 ~ 08. 03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행정법무팀장
08. 03 ~ 09. 12 :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10. 01 ~ 10. 05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장
10. 05 ~ 13. 05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13. 05 ~ 14. 01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14. 02 ~ 현재 : 국립해양박물관장

상 훈
96. 6. 29 모범공무원

포토 후기

충무공 전술비연의 비밀을 풀어라!

충무공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전술비연(신호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연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